

가정예배 안내서

3

1993

# 충현의 만나

신명기 24:1~34: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 3월의 기도 제목

1.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해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해
4. 기도원에서 모이는 교구별 기도 운동의 성령 충만을 위해
5.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해
6.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충현의 만나

1993년 3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장봉생·김수상

한용관·성봉환·조윤재 목사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 신명기 서론 \*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세우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성경이기도 하다. 신명기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새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 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과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케 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언약은 여호수아 당시(수24장) 세겜에서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도 갱신되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받는 안식과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고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었다. 새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24:4)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때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증서에 도장을 찍으므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의 말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유 없이 남편의 감정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악습을 막기 위하여 꼭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취한 시대적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혼을 합법화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는지요? 우리 가정은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가정을 해하는 자는 생명을 해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자는 에덴동산 아담의 가정에 찾아온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사탄의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 기도 /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24:9)

9절의 말씀은 모세를 비방함으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긴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암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인격을 침해한다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이웃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물건을 담보잡는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투를 담보잡는 것입니다. 외투는 침구요 가난한 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지도자를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격을 해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입술로만 존경하고 비방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 기도 / 주여,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24:22)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종의 상태로서 애굽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첫째, 감사하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속량이므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넷째로 경건한 생활을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 없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낮추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사랑의 전달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 기도 / 구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일곱 배의 영력을 주옵소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25:4)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태형에 대하여 그리고 계대 결혼식에 대하여 말하면서 중간에 응분의 대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판에서 악인으로 정죄된 자가 40대를 맞는 것이 당연하듯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과 십자가의 속죄를 전하다가 40에 한 대 모자라는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상급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도록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란에서는 나무에 매달아 눈 속에 파묻어 사형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소서. 충현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께 가증하니라』(25:16)

어느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심방을 하고서 주차비를 내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써서 드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주차료를 기입하느냐, 기입하지 않고 백지 영수증을 가지고 가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로 써요?”라고 했습니다. 주차료를 받은 대로 써야 할 영수증인데 이처럼 서로 흥정하여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울추를 속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공정한 거래를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 21:3)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거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더욱 신앙 양심을 팔아 버리고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4)는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정한 사업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26:16)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준비하시면서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더욱 전심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순종의 기준은 “다하여”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보상, 약속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수레바퀴의 축은 순종입니다. 신앙 생활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심의 계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축복해주십니다. 이 한 마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심과 각오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27:8)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라는 교육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건넌 후에는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돌에 기록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율법(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고후 3:3).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나아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담아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와 성경을 묵상하는 경건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끊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27:26)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어떻게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의 율례를 외치면 다같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의 뜻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아멘 만큼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과 순종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멘하는 신앙이야말로 지극히 마땅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고후 1:20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간절함의 표현인 동시에 책임있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아멘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엄숙히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아멘”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는 순종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28:1)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민족이 되는 축복,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신 28:2, 9, 13, 14).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는 열심만 있다면 축복도 보장된 것입니다.

▶기도 / 하나님, 순종하는 신앙으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배가의 성장을 주옵소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28:15)

본문은 저주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반대편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즉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부응하는 생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축복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적어도 저주보다는 축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열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십시오(갈 5:16). 그리하여 저주의 기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오직 축복의 약속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시오.

▶기도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보다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말씀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28:25)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책인 동시에 저주의 책이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 것과 똑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대적들이 치려고 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7절).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대적에게 패하게 하십니다(25절). 그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 치료함을 얻지 못합니다(27절, 35절). 더욱 무서운 일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소경이 대낮에 어두운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드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과실나무에 소출이 없게 되며 가축을 빼앗기게 되며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는 헛수고를 당하며 압제와 학대를 받아 종국에는 미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돌이켜 순종케 해야만 합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잃어버린 천국 백성들을 모두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28:36)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며 우상에게 절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36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여 은혜의 생활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게 될 때 가정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예배를 잘 드릴 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와 그의 가정의 실패를 살펴봅시다. 2장 17절에, “이 소년들(훤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엘리 가정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삼상 4장). 나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28:47)

예수를 믿는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본문에도 네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잘 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핍절하게 되며, 둘째는 대적을 섬기게 되며, 셋째는 멸망을 당하게 되며, 넷째는 너무 주리어 자기 자녀를 잡아 먹게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넷째 예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방나라 아람에게 포위되어 굶주림에 처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굶주림으로 자식을 잡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에도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풍족하나 궁핍하나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

▶기도/ 1년 365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복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28:58)

경외라는 말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누구를 경외하며 서약할 때 갖는 믿음에 해당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한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 질병이 임합니다. 질병이 중하고 오래 걸리며 그 질병을 몸에 들어붓게 하시는 재앙을 받게 되며(58-59절) 둘째, 복지를 잃어 버립니다(62-63절). 셋째, 흠어지게 되며(64절) 넷째,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65-6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는 99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 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전 12: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잠 9:10).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복을 주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29:12)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세번째 설교로써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 때에 베푸신 능력(2-3절)과 광야 40년 동안 의, 식, 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5-6절)과 최근에 일어난 전투에서의 승리(7-8절)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능력 아래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4절).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과연 지난 한해 동안에 돌보아 주셨듯이 올해에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떡은 인간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였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 기도 / 올해도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선교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19:20)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강박한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박케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경고하신 저주로써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행할 사람들이지만 진리를 떠나기를 밥먹듯이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자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며 잠시 후는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악독한 교훈을 주장하며 그릇된 행동으로 신앙 공동체를 잠식하는 독초 같은 존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경성하여서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행해야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사하리라 오해하지 말고 그날 그날의 발뺌은 회개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예수의 피로 회복하십시오.

▶ 기도 / 충현교회와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어 국가와 민족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독일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 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29:27)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성도들이 구원 못받으면 어찌지 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 얻겠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즉, 심는 자에게 거둠을 주십니다. 28장 9절, 14절의 축복은 “듣고, 지켜 행하면”의 조건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길 때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그가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에 면류관을 준비하는 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윤택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기도 /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며 애굽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30:8)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으로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찌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옛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었으나 70년만에 다시 해방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내 버리지 않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의 성도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일지라도 범죄할 때에는 분명히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택하지 않은 자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금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공로없는 죄인들을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더욱이 거듭 용서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그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 기도 / 하나님 저는 실로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하여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되며 현지인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게 하소서.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30:14)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깨닫기 어렵거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겠거나 너무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변명해서도 안됩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기와 지키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있고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도 주저않고 해내는 수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거나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날이 장구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과 번성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과 순종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 기도 /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이 있게 해주옵소서. 안석렬 선교사 (수리남)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31:8)

현대인의 생활은 참으로 바쁘고 삭막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쁘게 돌아갈 뿐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교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인정이 메마르고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할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힘을 내라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격려를 해준다면 힘이 솟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격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의 기쁨을 생각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형제가 힘을 얻게되고 낙망 중에 있는 자매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상한 심령에게 격려를 해주며, 동행해 주며, 기도의 후원자가 됩시다.

모세의 격려는 단지 인간적인 따뜻한 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 기도 / 오늘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홍콩이 복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31:11)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11-13절). 귀로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들어야 하고, 눈으로는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책이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여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12-13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13절).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돈이나 집이나 건강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꼭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요?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형선, 한영자(뉴질랜드), 이기성, 박정아(호주) 평신도 선교사가 현지 적응을 잘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31:20)

하나님께서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들을 보살피며 지키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신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도 잘 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훌륭한 신앙고백을 하였으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 러나 그 후,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큰 전도자가 되어 순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 하였으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서 죄악 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현재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 갑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멀리 떨어져 갑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성령의 열매맺는 생활 등에서 어떠하십니까? 멀어지고 있다면 어서 돌아섭시다. 가까이 가고 있다면 더욱 열심을 내시다.

▶ 기도 / 때마다 일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 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31:29)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안이숙 여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핍박이 있고 환란이 닥쳐와도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십니다.

셋째로,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야합니다. 나는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 받을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재앙의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축복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죄악에 오염되지 말고 언제 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시고 호위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32:10)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참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많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짐승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꼭 의지합시다. 그러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불 속에서 하나님, 아사랴, 미사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혹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 기도 /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금요찬양집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32:28)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모든 방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요, 불의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엘리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알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세상적인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경험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의 학식과 경험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허무이며 무지인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는 참 지식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 돈, 직장, 입시, 결혼, 명예 등이 존귀히 여겨지고 있습니까? 룯의 사위나 아내처럼 되지 말며,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처럼 되지 맙시다.

▶ 기도 / 우리 나라와 사회와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밀알선교회와 장애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32:36)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하여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사 징계의 손길을 멈추고 속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속죄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내리십니다. 36절에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이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어려운 곤경에 빠진 처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악의 노예가 되어 무력해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비와 공홀을 베풀어주십니다. 36절에 보면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고 했고 43절에 보면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는 주저없이 판결하시고 벌주시지만 그러나 그 채찍은 잠깐이시고 다시 돌이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사랑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라스도의 피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를 공홀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32:52)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평생을 다 바쳐 꿈꾸어 오던 땅이요 그렇게도 사모해 온 땅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의 도전을 이겨내며 광야의 온갖 역경을 극복해오며 바라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려있는 땅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가나안 땅 맞은 편 느보산에서 눈앞에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목적인 땅,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5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데스의 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지만 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찌라도 죄를 범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삶속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33:3)

본 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중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서론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자신의 사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고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율법을 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셨던 당시의 장엄한 광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직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한 모세의 모습은 백성을 지도하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처럼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을 장중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길이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고오는 세대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번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예의 순종이 곧 기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충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자손손 축복받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농아자들의 교회학교인 에바다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믿음을 주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다』(33:27)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이 말씀의 뜻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그 품에 안은 팔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로 보든지 재주로 보든지 그 외부적인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참으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팔은 어떤 팔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변함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은 영원한 불변의 팔입니다. 세상의 팔은 유한한 팔이지만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신 불변의 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원한 팔은 어떤 역할을 해주십니까? 이 팔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46:1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우리의 어려울 때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피난처가 어머니의 품인 것 같이 걱정 근심이 많고 전쟁과 재난이 많은 이 세상에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입니다. 어떤 환란, 풍파,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새 봄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생기를 얻고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33:29)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법칙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건강, 가정, 장수, 성공 등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때 행복이 찾아 옵니다. 또한, 여수론 즉 이스라엘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 애칭이요 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행복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종된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행복의 최대 이유는 여호와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행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뭉클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하게 느끼는 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구체적으로 찬양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간 그들을 보호할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그들에게 패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함께 하실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세 배푸신 구원인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 기도 /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아들에게 떡과 복음이 함께 전달되는 풍요함을 주옵소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34:10)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최후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과 죽어 장사되는 장면과 모세의 인품과 업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전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이며 그가 행한 일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담대히 바로에게 나아갔으며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모세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배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이제 비스가 산에서 최후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을 다만 바라 보기만 하고 못들어가는 모세의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상의 가나안보다 몇 천만배 더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셨으니 도리어 더 기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땅을 떠나나 이 땅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기도 / 하나님 우리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4월에도 함께 하옵소서.

## 제10과

## 영의 양식인 말씀

· 찬송 : 234장, 235장

· 성경 : 시 19:1-14

· 요절 : 시 19:10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1.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1-6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늘과 궁창에 있는 우주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1절). 광활한 우주에 펼쳐진 모든 세계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2,3절). 날이 계속되고 밤이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질서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특별히 하늘의 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4-6절). 해가 뜨고 지는 장관을 볼 때, 또 햇빛을 통해 세상이 밝을 뿐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7-11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라고 했습니다(7-9절).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7-11절)

- 영혼을 ( )합니다(7절). - 우둔한 자로 ( )합니다(7절).
- 마음을 ( )합니다(8절). - 눈을 ( )합니다(8절).
-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는 자에게는 ( )이 됩니다(11절).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10-11절)

-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10절).
-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11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므로 우리는 고범죄(고의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13절), 나아가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입니다(14절).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

1.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뜻을 알게 되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성경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은(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깨닫고, 자연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3 / 12 (금) 구역공과

### 제11과

## 불 같은 말씀

· 찬송 : 236장, 241장 · 성경 : 램 5:14-19

· 요절 : 램 5: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  
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였고,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  
침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난하며 반박할 뿐  
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 같은 말씀으로 진노하시  
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 1.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는 불입니다(14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때  
에도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말씀은 밝게 하는 등불이기도 합니다(시 119:105, 130 ; 벧후 1:19).

세상과 인생들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습니다. 목표도 알지  
못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도 알지 못합니다.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새로운 빛이 비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우리의 눈을 밝  
게 해줍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

인생의 목표를 밝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렘 23:29).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론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눅 24:32).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움으로 순종하고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열심있는 신앙 생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로 불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며, 세상과 인생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여 신앙의 열심을 다하게 하는 불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경건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뜨거운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적 용

1. 지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므로 징계를 받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

### 제12과

## 생명의 말씀

· 찬송 : 234장, 235장

· 성경 : 요 5:24-29

· 요절 :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도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1. 말씀을 듣고 받는 자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롬 10:1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갖게 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이미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은 결과입니다.

#### 2.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25절).

인간의 교훈은 기껏해야 각성과 격려를 줄 뿐이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생의 창조주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어나게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복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 3.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부활시킵니다(28, 29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죽음이 곧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고, 직접 많은 사람을 다시 살어나게 하셨습니다. \_\_\_\_\_(눅 8:54, 55), 나인성 과부의 \_\_\_\_\_(눅 7:14, 15)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_\_\_\_\_(요 11:43, 44)이 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의 부활,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 ·적 용

1.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준 성경구절을 말해봅시다.
2. 요절 요 1:24을 암송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봅시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제13과

## 순종해야 할 말씀

· 찬송 : 259장, 377장      · 성경 : 마 7:24-29  
· 요절 :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 1.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 2.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24절).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24절). 말씀을 순종하므로 살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약 2:22),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요일 3:22). 순종하므로 받는 축복을 생각할 때,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3.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26절).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믿음이요(2:17), 그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신 1:43-45).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축복을 위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 ·적 용

1.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은 은혜와 축복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 가정예배 안내

---

### ■ 예배순서

- 1) 찬 송 ..... 다 같 이
- 2) 성경봉독 .....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